

고전문학은 내가 내 땅에 내린 거대한 뿌리

한국 고전문학사 강의 (전 3권)

박희병 지음



“심학자(心學者)는 덕을 세우고 구학자(口學者)는 말을 세우니 덕이란 것은 혹 말에 의지해야 가히 일컬어질 수 있으며, 말이란 것은 혹 덕에 기대어야 씩지 않고 오래도록 전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은 ‘낭해화상비명’에서 비문을 쓰게 된 내적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심학자’(마음을 닦는 학자)는 승려를, ‘구학자’(언어로 학문을 하는 사람)는 문인을 의미한다. 오래도록 전해질 한편의 창의적인 글, 불후의 문장을 쓰기 위해 그 역시 고심했음을 보여준다.

박희병 서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는 ‘한국고전문학사 강의’(전 3권)에서 “한국문학사에서 최초의 문인적 자의식을 최치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전기(傳記)소설이라 할 수 있는 ‘호원(虎淵)에 대해서도 “자기 희생의 문제를 우리 문학사에 처음으로 뚜렷하게 제기하고 있다”면서 “최치원은 우리 문학사에서 현재 확인되는 최초의 소설작가라 할 것”이라 설명한다.

대학에서 한국고전문학을 40년 가까이 가르쳐온 박 교수는 정년을 앞둔 2021년 1학기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마지막 수업’을 비대면 ‘중강의’로 진행했다. 보통 30명가량 들던 ‘한국고전문학사’ 수업을 61명이 수강했다. ‘한국고전문학사 강의’는 온라인 강의의 뼈대로 수정·보완해 32개 주제 3권의 책으로 엮었다.

1권은 ‘문학사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시작으로 ‘건국신화와 광개토태왕 비문’부터 ‘고려말 신홍 사대부층의 형성과 그 문학’을 살핀다. 2권은 ‘조선 전기 문학을 보는 시각-훈구파와 사림파’에서 조선 후기 ‘중인문학’과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들’까지 나아간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이 실감형 체험공간 ‘열린마당’을 새롭게 단장했다. 실감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한 송강 정철의 가사작품 ‘관동별곡’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3권은 실학자 홍대용과 박지원, 담연그룹을 비롯해 추방된자의 글쓰기-정약용-이학규, 그리고 ‘근대와 고전문학의 행방’까지를 보여준다.

박 교수는 1장 ‘문학사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것이 문학의 본령”이라며 “문학의 역사속에 구현된 인간의 다양한 마음이며 정신과 대면함으로써 삶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제 문학사 수업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고전문학사 공부의 역사 속에 제각각을 남긴 다양한 인간들의 삶과 정신을 엿보는 일”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다보면 학창 시절 배웠던 한국 고전문학사는 피상적이었음을 단번에 깨닫는다. 그저 문인과 작품·책 제목만을 암기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신간은 마치 박 교수의 ‘마지막 수업’을 듣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 주몽에게 보리종자를 건네는 모습을 얘기하며 “동명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상고시대 문학사의 눈대목”이라고 평가한다.

16-17세기 여성 문인들(황진이, 허난설헌, 이옥봉, 매창, 설죽)과 최치원, 이구보, 김시습, 임제, 이언진 등 세상과 불화했거나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문인들에 주목한다. 특히 중인

(中人) 역관 출신 이언진(1740-1766)이 생소하다. 26살이라는 짧은 생을 산 그는 호로 골목길이라는 의미의 ‘호동’을 사용했다. 사후 100년 가까운 1860년 후배 역관시인들이 중국에서 유고집(송목관집)을 간행했고, 후손들이 유고집(송목관시여고)을 펴냈다. ‘신여고’는 ‘타다남은 원고’를 의미한다.

저자를 따라 한국 고전문학이라는 울창한 숲속을 걷다보면 이제껏 보지 못한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게 된다. 저자는 시인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를 인용하며 한국 고전문학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한국 고전문학은 ‘나’의 거대한 뿌리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이지요.”

〈돌베개·각권 2만75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녹조의 변성=환경전문기자로 30년 동안 꾸준히 녹조 문제를 지적한 저자가 외국에서 대발생하는 녹조의 심각성을 토로한다. 국내·외 논문을 참조해 강물 오염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 원인으로 3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한 남세균 등을 꼽는다. 남세균의 성장을 야기하는 수생태계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에 쌓여있던 오염물질,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질, 인 등을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녹조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오북·1만9500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너무 멀어도 문제, 너무 가까워도 탈이 나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관계의 건강한 경계선을 찾아가는 마음 수업을 표방하면서, 너무 배려심 많은 것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기분 좋게 거절하는 법, 나부터 나를 위한 법, 무례한 이에게 대항하는 우아한 방법 등 현대사회에 통용될 법한 인간관계론을 정리한다.

〈더퀘스트·1만9500원〉

▲언어와 존재=‘언어’가 어떻게 우리 사유체계를 만들고 정치, 치세술, 세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해답서. 이만자 출신의 저자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면서 언어가 존재를 구성하는 반석이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랑그와 파를, 기호와 기표, 기의 등 구조주의 언어이론을 관통하면서 인간 언어체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SEEP·1만8800원〉

▲건축물의 구조 이야기=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건축구조 이야기. 아치나 돔, 콘크리트와 케이블 등은 많이 들어봤지만 궁륭, 보, 절판 구조, 프리스트레스트는 생소할 것 같다. 책은 이 같은 구조를 기초부터 알려주면서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했다. 건축물에 담긴 장력, 수평 응력 등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비취셀의 미디 타워, 브라타니아 철교, 콜브룩데일 다리 등 예시들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냈다.

〈그린북·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열세 살의 품격=3인 3색 사춘기 소녀 소녀의 리얼리티 100% 성장기. 준형, 대단, 남희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릴적부터 단적으로 지내왔다. 겹크리시 김남희, 영풍발달수영 사랑꾼 정준형, 겹은 냉정하지만 속은 따뜻한 내대단. 셋은 함께 웃고 울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어느 날 예쁘고 착한 전학생 예슬이 등장하면서 준형이가 이상해진다. 세 사람은 열세 살의 품격을 갖출 수 있을까. 〈파란지전자·1만3500원〉

▲여우 오는 날=‘여우’와 ‘나무’가 주인공 책. 서로 다른 두 존재는 교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날 큰 눈을 피해 여우는 나무동치 구멍에서 곤

히 잠이 든다. 붉은 나무 위에 흰 눈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우는 자신과 나무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나무도 여우가 곁에 와줬기에 늘 외롭지 않았고, 두 존재는 친구가 되는데……. 〈리틀브레인·1만6000원〉

▲10대를 위한 세계 분쟁지역 이야기=우크라이나부터 시리아까지, 국제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군기자 프란체스카 만노키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한다. 탈레반의 눈을 피해 아프가니스탄 폐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ISIS의 폭제에서 생존한 알리 알바루디 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롤러코스터·1만6800원〉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 책임은 동물 아닌 인간에게 있다

개, 나의 털멍치 동반자

김벌리 아틀리 지음, 이보미 옮김



반려견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이라도, 동물은 우리 삶에 있어 ‘전부’가 될 수 없다. 카드값 명세서부터 오늘 저녁 회식까지-... 인간은 생각하고 행여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개’의 전부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현관문을 다시 여는 저녁까지 개의 하루단 철저히 반려인의 일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

최근 김벌리 아틀리가 펴낸 ‘개, 나의 털멍치 동반자’는 개를 키우는 일이 단순히 대상을 예뻐하는 능력

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려준다. 개를 집에 들이는 것이 ‘한 존재를 책임지는 중대사’라는 메시지 자체는 아주 새롭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문장이 공허한 구호처럼 소비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기에, 동물에 대한 책무를 거듭 강조하는 저자의 목소리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강아지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다. 사실 개의 나이와 상관없이 개를 키우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우리는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육구와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표현 방식을 지닌 다양한 종의 반려동물을 키운다.”

저자는 반려 행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인간과 개의 차이를 꼬집는다. 서로 다른 표현방식을 갖고 있기에 귀의 움직임, 꼬리의 모양, 강강거리는 소리 등 사소한 것까지 반려인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해 유기가 되는 약 10만 마리의 개 중 다수가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에서 버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개의 언어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지적한다.

반려동물을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훈련 이전에 올바른 산책 방법, 개의 영양과 건강 관리법, 개가 보내는 신호를 읽는 방법 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반려인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 행동의 귀책을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서 찾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내 곁에 있어 주던 개들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진정한 충성과 헌신, 쉽게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까지도.”

책의 말미에서는 반려동물과 언제가 정해진 끝이 있음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반려인은 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반려동물이 지구에서 정해진 시간을 다 쓰고 무자게 다리를 건너는 것은 슬픈 작별만은 아니라는 가르침을 준다. 죽음의 공포를 딛고 ‘털멍치 동반자’와 동반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나무의마음·1만98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